2017학년도 교양교과목 글쓰기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 과	유아교육과	학년	1	학번	201773024
수강 교양 과목명	레크리에이션			이름	우지인
안 내 사 항	▪ 에세이 분량 : 양식 용지 3매 이상의 자유 (폰트: 굴림체, 10pt, 줄 간격160%) ▪ 학습에 관한 내용과 방법, 수업 참여 전후 본인의 학업성취에 관한 변화를 기술하면 좋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노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딱딱할 것만 같았던 대학교 수업이 교수님의 농담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다른 과목들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노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라는 말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했지만 수업을 받으면서 교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점수를 주시겠다는 교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말을 섞고, 손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서로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직접 게임을 진행하고, 같은 조의 조원이 못하면 장난으로 구박도 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들의 성격은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종종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크리에이션 수업에서 이런 성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수업은 너희들이 진행하는거야."

처음에 수업할 때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게임을 하고,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고, 교수님께서 리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지자 30명 정도 되는 반의 학생들이 모두 게임을 한 개씩 준비하고, 준비한 게임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며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하는 진행인데도 매끄럽게 진행하는 친구들에게는 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진행이 서툰 친구들에게는 실수를 경험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접하는 게임도 많았고, 직접 게임을 진행할 때 실수가 많았지만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아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변화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친구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단순히 오락의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던 게임을 통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이끌고 진행하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승부욕을 더 올려!"

앞 반 친구들에 비해 제가 속해 있는 반 친구들이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활발한 친구들이 유쾌한 농담을 하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인 반 친구들을 보며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뽕망치' 입니다. 처음에는 때리면 아플까봐, 어색한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쉽게 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때리는 강도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승부욕도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반 친구들이 게임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뽕망치 하나가 많은 친구들의 승부욕과 열정을 깨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대처로 반 친구들의 승부욕과 열정을 깨우는 것을 보며 경험의 중요성을 깨

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야.”
교수님께서는 몇 번 수업대신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종현 강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홍종현 강사님은 교수님의 레크리에이션 강의를 들으며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꿈 없이 막연히 들어왔던 대학에서 인생의 멘토인 교수님을 만나 꿈을 찾았고 결국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는 그냥 ‘레크리에이션 강의’가 아닌 ‘인생의 길잡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게임하고, 웃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운 시간이 길지 않은 교양과목이지만 그동안 배운 것이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가르치는 레크리에이션에서 제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합쳐도 좋아.”
교수님께서는 게임을 합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반 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을 가져오면 게임 방법을 익히고, 게임을 하다가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또 다른 게임을 합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을 합치는 것이 조금 독특하고, 그동안 하던 방법이 아니라서 적응하는데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모두 푹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합치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 자체의 즐거움이 있지만 합치는 것은 두 개의 즐거움이 합쳐져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능숙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서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서툰 친구들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가끔 짜증을 내거나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교수님께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숙연해지고 서툰 친구들을 잘 기다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게임에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기다릴 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게임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 인내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진행해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하여 자신이 가져온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준비해 오라는 게임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준비해오지 않았거나 완벽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후회 없이 리드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이끌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리드할 때 책임감 없이 행동하지 않고, 늘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에 후회가 없는 레크리에이션 수업”

제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과 특성상 많은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진행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게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협동심, 순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새로운 게임을 생각해내는 창의력,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그저 재밌게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레크리에이션에서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이거 맞추는 사람은 보너스 10점 줄 거야.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지 맞춰봐.” 라고 문제를 내셨습니다. 친구들은 보너스 10점을 얻기 위해 특이한 답변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무도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없네? 정답은 친구와 함께 가는 방법이다. 친구와 함께 가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 뭉클하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잊을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수업은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수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머리로 게임을 외우고, 머리로 게임을 설명하고, 머리로 게임을 하고, 머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즐기고, 가슴으로 게임하고, 가슴으로 수업하고, 가슴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은 제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레크리에이션 교수님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좋은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수업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